시대 초월해 살아남은 고전, 그 불멸의 비결은?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명작을 읽는 기술

박경서 지음

'위대한 유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방인', '변신', '노인과 바다', '폭풍의 언덕', '테스'….

세기의 명작들이다. 시대를 초월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고전들로, 혹여 문학에 관심이 없는 이들도 한번쯤 들었을 작품들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들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 문학에는, 특히 오랜 세월 사람들에게 읽히는 고전에는 시대를 꿰뚫어보는 힘이 있다. 책을 통해 깊은 통찰을 얻기 원하는 독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문학의 의미와 고전의 재미를 함께 얻을 수 있는 안내서가 나왔다. 소설을 읽는데도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지 의문이지만, 길잡이가 있다면 분명 도움이 될 법하다.

박경서 박사의 책 '명작을 읽는 기술'은 문학의 줄기를 잡는데 중점을 뒀으며 바쁜 현대인을 위한 친절한 길잡이를 자처했다.

평소 문학의 사회학적 의미에 관심이 많은 저자는 '조지 오웰'을 발간한 것 외에도 '1984년', '동물농장'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이번 '명작을 읽는 기술'은 "독자는 고전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저자는 본격적인 고전을 소개하기에 앞서 문학의 뿌리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서 시작해 문학 논쟁부터 살펴본다. 헬레니즘은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가치관인데 반해 헤브라이즘은 신중심의 신본주의다.

특히 저자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메시스를 쉽게 설명한다. 예술이란 그림자를 모방할 뿐이라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예술은 현실을 복제하는 것이 아닌 창조적 재현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메시스를 조목조목 풀어낸다.

또한 저자는 고전주의, 문학이라는 것은 "꾸준히 삶을 닦아 나가는 것"이라는 지론을 이야기한다. 알렉산더 포프의 '고요한 삶'을 예로 들며 고전주의를 매개로 당대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현실과 미래를 시금석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견해를 제시한다.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문학은 삶에 대해 알고 있다'로, 여기에는 모두 12편의 고전소설과 아울러 저자의 사유와 관점 등이 담겨 있다. '문학 줄기를 잡는 노트'라는 부분에는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정치적, 사회적 의미 등을 기술하고 있다.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의 주제는 속물이 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다. 하층민 핍의 신분상승 과정을 통해 당대 사회의 신사라는 개념의 허구성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진정한 신사란 비인간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아 인식을 정립하여 정신적 성숙의 단계에 진입하는 인간"이라고 규정한다.

상품 가치 없는 인간을 그린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은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어느 날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화되어 가는 인간에 대한 메타포라 할 수 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이란 존재는 사회적·집단적 관계 속에서 규정되며 그 사회와 조직에서 효용 가치가 없어지면 종말을 맞는다"는 문제의식은 오늘의 우리에게 적잖은 질문을 던진다.

이밖에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는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말하며,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은 사랑을 버리고 안락함을 선택한 상황이 주는 또 다른 고통과 번민에 초점을 맞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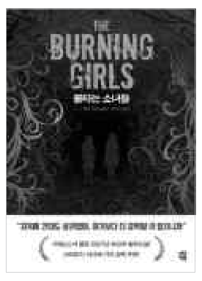
돈에 집착하는 현실주의자와 낭만을 좇는 갑부를 모티브로 한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영혼의 길을 나서는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도 잔잔한 울림을 준다. 〈열린책들·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의 오랜 논쟁 가운데 하나가 모방을 뜻하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창조적 재현을 의미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메시스'가 있다. 사진은 라파엘로 산치오의 벽화 '아테네 학당'. 〈열린책들 제공〉

불타는 소녀들

C.J.투더 지음, 이은선 옮김



선데이 타임스, 선데이 익스프레스, 그라임 리즈, 라이브러리 저널, 퍼블리셔스 위클리 등이 추천한 소설, 특히 타임스가 뽑은 '2021년 최고의 범죄소설'이라는 타이틀은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게 한다.

영국 작가 C.J.투더의 '불타는 소녀들'은 제목만큼이나 강렬하면서도 호기심을 끈다. C.J.투더는 데뷔작 '초크맨'이 원고 공개 2주 만에 26개국에 판권이 계약될 만큼 베스트셀러 작가로 도약했다. 이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최대 화제작으로 떠오르며 총 40개국에 계약됐다.

이번 장편은 시골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스릴러다. 작가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사한 마을에서 작품의 모티브를 얻었다고 말했다.

15세 딸을 둔 잭 브룩스 신부는 교구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는다. 이 일로 그는 채플크로프트라는 작은 마을 교회로 발령을 받는다. 얼마 전 교회 신부가 사망해 갑자기 공석이 생겼으며, 후임을 정하는 동안 임시로 맡아줄 교구사제가 필요하던 즈음이었다.

이사한 첫 날, 잭 신부는 딸 플로와 함께 교회를 둘러보던 중 피범벅으로 변한 한 여자아이를 보게 된다. 얼마 후에는 누군가 자신에게 보낸 정체불명의 상자를 건네받는다. 안에는 가죽 성경을 비롯해 묵직한 십자가, 모슬린 천, 메스 등이 들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큼직한 칼이었는데, 삐죽삐죽하고 예리한 칼날은 갈색 얼룩으로 덮여 있다. 그리고 피….

소설은 순간순간 미스터리가 증폭되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면서 손에 땀을 쥐게 한다. 탄탄한 구성과 재미는 찌는 듯한 무더위를 씻어주기에 충분하다. 〈다산책방·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장자, 경계와 융합에 대한 사유

박영규 지음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세상 풍경이 바뀌고 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이전과는 달라졌다고 보는 게 맞다. 여기에는 일하는 방식은 물론 소통의 양식, 이곳에서 저곳으로의 이동 등 기존의 익숙했던 방식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는 것이 전제된다.

그렇다면 과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유의 패러다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장자의 사유를 매개로 창조적 융합 현상을 탐색해보는 책이 발간됐다. 한국승강기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박영규 박사가 펴낸 '장자, 경계와 융합에 대한 사유'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넘어 다가올 미래를 일깨우는 장자의 가르침을 담았다.

저자는 가장 먼저 공간의 한계, 경계의 한계를 돌파하라는 것이 장자의 주문이라고 본다. 대붕은 단숨에 구만리 상공으로 비상하는데, 구만리는 3만6000km다. 즉 장자는 기존의 사유 패러다임을 벗어나 새로운 우주적 사유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상황을 대붕이라는 상상 속 새로 비유한다. 오늘의 우주선이 그와 같은 맥락에서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종간 경계 돌파도 중요한 관심사다. 저자는 대붕은 원래 바다에 사는 곤이라는 물고기였지만 조류로 종간 경계를 단숨에 돌파한다고 설명한다. 연기를 뿜어내며 솟구쳐 오르는 우주선 나로호를 생각하면 장자가 대붕 에피소드에서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시간의 초월도 필요하다. 저자는 대붕은 한번 날은 후 6개월을 쉬지 않고 나는데 사유의 패러다임은 시간적 지속성에서 싹튼다고 부연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장자의 설명에 따르면 편협한 기성지식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푸른영토·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청년 도배사 이야기

배윤슬 지음

매일 아침 새로운 벽 앞에 서는 청년이 있다. 그는 펜스 너머로만 보았던 '건설 현장'에 들어가 난생처음 보는 환경에서 일을 하며 2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많은 것을 경험했다. 특히 지어져가는 아파트 안에서 시멘트 벽을 벽지로 채워가며 몸을 써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의 즐거움을 알게 됐다.

도배사 배윤슬씨의 이야기다. '청년 도배사 이야기'는 배 씨가 건설현장에서 '도배'라는 분야에서 여성으로 일하는 모습을 기록한 책이다.

그의 전공은 사회복지학이다. 대학 졸업 후 전공을 살려 취업했지만 조직문화에 회의를 느끼고 자신에게 더 잘 맞는 업(業)을 찾아 나섰다. 퇴사를 결심한 후 다양한 직업들의 면면을 탐문했다. 그는 내가 정말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스스로를 혹은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 오래 버틸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힌다.

첫장 '새로운 문턱 앞에서'는 초보 도배사의 설렘과 긴장된 마음, 건설 현장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 등이 담겼으며, '까마득한 천장을 올려다보다'에서는 벽지의 종류와 특징 등 작업 환경에 대해 좀더 잘 알게된 그의 모습과 집이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데서 느끼는 보람을 이야기한다. 세번째 '벽과 모서리가 만나는 곳'에서는 도배사의 일상을 좀더 세세하게 다룬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지내며 알게 된 장단점, 그리고 오랜만에 가져보는 달콤한 휴가에 대한 단상도 들려준다.

마지막 장 '창문 밖을 내다보며'는 도배사의 삶에 대한 진지한 생각과 고민을 담고 있다. 〈궁리·1만2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올겐으로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음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	**한 국 기 원** 광주 북구 운암동 450-17 (운암시장 앞 한국회관 3층) 바둑 원장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넓고 깨끗한 환경 ☎ 010-8610-8373	**힐스템힐링센터찜질방** 광주 북구 동림용산로 33, 핸드폰가게 2층 만성통증, 요통, 오십견, 수족냉증, 수술후유증, 관절염 각종 엘보, 산후통, 손발저림, 산후조리, 다이어트 피부미용, 아토비, 비염, 불면증, 피로회복, 생리통 ☎ 062)413-3507, 010-4630-3507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해 미 패 션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계량한복·무대의상·작품한복전문 ☎ 062)224-5958, 010-6777-5958	**(주)K&J컴퍼니**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255, 3층 미래를 생각하는 재테크, 신재생에너지 재테크 원금보장, 안정된 높은 수익 ☎ 1899-1972	**양지공인중개사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70 (두암동 946-7) ☎ 062)263-2223, 010-3819-6595	**써니헤어샵가발** 나주시 성북동 4거리 삼성디지털프라자 옆 최신식 두피 케어 전문 컷트, 파마, 염색, 탈모관리, 히피펌 전문 전화예약 ☎ 010-3996-0489	**동태랑대구랑전문점** 나주시 남내1길 4-1 각종 모임 환영 ☎ 010-2127-0888	**석 당 화 랑**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동 양 철 학 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필 스 제 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굴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갈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대신청소전문기업**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54, 2층 학교청소, 공장청소, 업소청소, 외벽청소 현장청소, 준공청소, 입주청소, 거주청소 이사청소, 해충방제 ☎ 062)526-1133, 010-6522-1524	**첨단 돌솥 감자탕 산포점** 전남 나주시 산포면 산남로 96 ☎ 061)332-6108	**초 대 화 랑** 동구 궁동54-2번지(예술의 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고 전 방 동구 궁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남도철학원** 북구 천변우로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 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신 신 예 술 의 집**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새희망 직업소개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54, 2층 남·여 인력 항시모집 ☎ 062)531-5511, 010-6522-1524	행정심판전문행정사 **행정법인 맥 행정법률사무소** 북구 유동 41-6번지 행정사 김유승 ☎ 062)523-5885, 010-5665-0150	**박 당 화 랑** 동구 궁동 51-18번지(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